

‘전국서 3만 가구’...비수기 2월에 ‘역대 최다’ 분양 예정된 까닭

수도권에만 1만7000가구 분양 예정...지난해 대비 3배 증가 3월 청약홈 개편·4월 총선·지난해 밀린 분양 물량 밀어내기 주택 경기 침체·분양가 상승...실제 공급 물량 좀 더 지켜봐야

통상 분양 비수기로 통하는 2월에 전국에서 3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된다. 지난해 미뤄진 분양 물량이 포함됐지만, 이례적으로 많은 물량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지난해 대비 3배에 달하는 1만7000가구가 분양이 예정되면서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분양 물량은 지난해(1만2555가구)보다 3배 증가했다. 수도권에 분양 예정 물량은 1만6645가구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역별로 경기(8700가구)가 가장 많고, 이어 서울(4485가구), 인천(3460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은 광주(4045가구)에서 분양 물량이 가장 많고, 충북(2330가구), 전북(1914가구) 경북(1668가구), 부산(1532가구), 충남(1363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울산, 강원, 경남, 세종은 예정된 분양 물량이 없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통상 2월에 분양을 하지 않지만, 올해는 3월 청약홈 개편이 지 개편부터 4월 총선 전까지 분양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일부 사업장만 이달로 분양을 앞당겼다”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일정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은 청약제도 관련 규칙 개정에 따라 내달 4일부터 22일까지 청약홈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고,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 청약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김수권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올해 558만 가구 지급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6.1조 지급 예상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가 지난해 대비 80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수혜가구는 558만 가구, 지급 규모는 6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14일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해 558만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액은 전년 대비 9000억원 증가한 6조1000억원이다.

자녀장려금 제도의 소득기준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고 최대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수급가구는 47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해 32만 가구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등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와 ‘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명과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해 연간 165만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해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우리 이웃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수상작(40건)을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22년 12월			'23년 12월			증감율(%)		
중합단가 [원/Mcal] (a)	사용량 [Mcal] (b)	난방비 [만원] (a×b)	중합단가 [원/Mcal] (a)	사용량 [Mcal] (b)	난방비 [만원] (a×b)	중합단가	사용량	난방비
96.20	1,330	12.8	107.31	1,122	12.0	11.5% ↑	15.6% ↓	6.3% ↓

*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포함한 중합판매단가

작년 12월 지역난방비 6.3% ↓ “단가 인상에도 사용량 줄어”

단가 11.5% 올라도 사용량 15.6% 줄어든 영향

지난해 겨울철 가구당 지역난방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비 단가는 올랐지만 올해 겨울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사용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난에서 공급하는 185만 세대 지역난방비는 전용 85㎡ 기준 평균 1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8000원(6.3%) 감소한 수치다.

최근 지역난방비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1.5% 인상됐다. 하지만 올해 겨울에는 사용량이 전년 대비 15.6% 감소했다. 평균기온이 상승한 데다 가구별 에너지 절약 실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물가에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가구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겨울철 지역난방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난방공사는 단가가 상승한 만큼 기온이 비교적 온난한 때에는 실내 온도조절을 할 것을 권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지역난방은 각 세대에서 상시 난방을 켜놓는 것이 아니며 개별난방과 동일하게 세마다 실내 온도조절을 조정하며 난방을 사용한다”며 “비교적 춥지 않은

날씨에는 실내에서 옷을 겹쳐입고 온도를 조절하며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권했다.

구체적인 절약 방법에 대해 공사 측은 “지역난방 절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에 가장 적절한 온도를 찾는 것”이라며 “온도를 1℃씩 올려가며 적정온도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실내 권장온도는 18~20℃다. 하지만 해당 온도가 집에 따라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어 방한용품, 내복 등을 착용하고 1도씩 조절해가며 가장 적절한 온도를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출 시에는 설정온도보다 2~3℃ 낮추는 것이 좋다. 장기간 외출 시에는 외출모드가 좋고 아예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동기에서 불필요한 난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차단 밸브를 함께 잠궈야 한다.

한편 난방비 부담이 큰 에너지 취약층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요금을 에너지바우처 포함 연 최대 59만2000원 내에서 가능하다.

오유나기자

“올해 양파 재배면적 4.7% 늘어 생산량 11.4% 증가할 것”



올해 전국적으로 양파 재배면적이 증가한 가운데 기상 호조로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양파 재배면적 실측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4.7% 증가한 1만8829ha로 파악됐다.

이는 농경면이 항공촬영을 통한 실측 조사에 앞서 전화로 재배 의향을 조사한 결과보다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전년보다 0.5% 늘어난 2971ha, 중만생종은 5.5% 증가한 1만5858ha로 집계됐다.

조사 시기별 증감률을 보면 지난해 10월 4.1%→11월 4.5%→실측이 이뤄진 12월은

상반기 조생종 공급 4% 늘 듯

4.7%로 더 늘어났다. 지역별로 2024년산 양파 재배면적 증가율을 살펴보면 경기·강원 8.6%, 전북 7.6%, 경남 6.1%, 경북·제주 5.5%, 충북 4.7%, 전남 2.8% 순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대부분 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했으나 전남지역 면적 증가 폭(2.8%)은 타 지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국 최대 양파 주산지인 전남 무안의 경우 조생종 재배면적은 1년 전보다 감소했지만 중만생종은 증가했다.

2024년산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2023년산과 평년 대비 각각 11.4%, 3.2% 증가한 135만4000t 내외로 전망됐다.

품종별 생산량은 조생종양파는 22만t, 중만생종양파는 113만4000t 내외로 예상했다.

3월 조생종 양파 출하에 따른 상반기 양파 전체 예상 공급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 늘어날 전망이다. 산지 양파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수급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1월 말 기준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 양파 거래가격이 kg당 1132원으로 지난해보다 23% 하락한 것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상반기 양파 전체 예상 공급량은 2023년산 저장 양파 출고 동향과 정부 비축물량 방출, 수입량, 조생종 양파 생육 상황 등에 따라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슬비기자

광주시민 10명중 7명 “설 이후 아파트 매매가 하락·보합 전망”

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 ‘사랑방 부동산’ 설문조사

광주 지역민 10명 중 7명은 설 이후 광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락 응답자의 절반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13일 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 사랑방부동산(home.sarangbang.com)이 지역민 559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설 이후의 광주 아파트 매매 가격 흐름에 대해 지역민 39.5%가 아파트 매매 가격이 내린다고 전망했다.

이러 보합이다 29.3%, 오르다 27.9%, 모르겠다 3.2% 순이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내린다고 전망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유로 언급했다. 응답자 중 51.1%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선택했으며, 입주물량 증가로 가격 상승 여제가 21.3%, ▲ 금리 변동 등 불안정성 16.7%, ▲ 대출 규제로 인한 매수 위축 10.4%, ▲ 기타 0.5% 순이었다.

반대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른다고 전망한 응답자들은 ‘대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답한 응답자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신규 분양가의 상승’이 40.4%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아파트 매매가 전망을 두고 하락과 보합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1월부터 3월 중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73.7%가 이사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이사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26.3%였다. 이사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 중 33.3%가 ‘내집 마련’을 이유로 꼽았으며, 그밖에 월세·전세금 부담이 12.2%와 편리한 교통·쇼핑 등 거주여건 11.6% 등을 이사 계획의 이유로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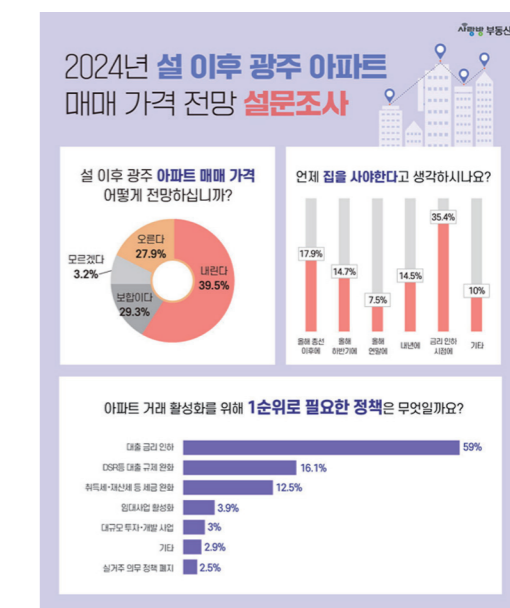
집을 사야 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등 시장 변화가 있기 전까지 관망하는 모양새다.

응답자 중 35.4%가 ‘금리 인하 시점’을 답했으며, 뒤를 이어 ▲ 올해 총선 이후 17.9%, ▲ 올해 하반기 14.7%, ▲ 내년 14.5%, ▲ 기타 10% ▲ 올해 연말 7.5%라 답했다.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다수가 대출 금리 인하와 DSR 등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1순위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중 59%가 ‘대출 금리 인하’라고 답했다. 이밖에 DSR 등 대출 규제 완화(16.1%)와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 완화(12.5%), 임대사업 활성화(3.9%) 등이 1순위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랑방부동산 최현용 팀장은 “이번 설문을 통해 계속된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이 아파트 수요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지역민들의 내집 마련의 의지는 증발했다가 보단 관망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당분간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가격 안정도 함께 진행되면 매매 수요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에는 남성 55.5%(310명), 여성 44.5%(249명)이 각각 참여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41%(229명)으로 가장 많았고, ▲ 50대 26.5%(148명) ▲ 30대 20%(112명) ▲ 60대 이상 9.1%(51명) ▲ 20대 3.4%(19명) 등의 순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3% 포인트다.

뉴스